

“중부세 논란 과잉된 측면 있어...부동산정책 일관되게 해야”

취임 한 달 김부겸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총리는 13일 부동산 세금 완화를 둘러싼 여권내 논의에 대해 “중부세가 서민의 삶을 흔들어놓는 것처럼 논의되는 것은 과잉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취임 한 달을 맞아 진행된 인터뷰에서 “정부가 부동산 문제에 대해 일관된 입장을 띄울 수 있게 밀고 간다는 사인을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4·7재보선 패배의 주원인을 ‘부동산 분노’로 보고 이를 다독이기 위해 상위 2%에만 중부세를 부과하는 완화안을 놓고 격론을 벌이고 있다.

김 총리는 “정부정책과 정부 정책을 불신하는 사람 간에 헝거주기처럼 돼 있는 양상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며 “부동산 문제에 있어 결국 가진 사람이 버티면 정부가 물러난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권 말에 접어들면서 당정간 불협화음이 시작

가진자 버티면 된다는 신호 안돼 제1야당 ‘30대 당수’ 선출은 기존 정치인에 국민 인내 한계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그런 특이 별 어지면 잘 봉합하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저를 발탁하신 것 같다. 정책적인 갈등이 정치적인 갈등으로 비화하곤 하는데 정책적 갈등에서 멈출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서 ‘30대 당수’ 이준석 대표가 선출된 데는 “우리 정치사에 정말로 엄청난 일”이라며 “저로서는 기존 정치인에 대한 국민적인 인내가 한계가 왔다는 그런 직책인 것 같아서 긴장하게 된다”고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김 총리는 공군 부사관의 성추행 사망 사건과 관련한 질문에는 “약자에게 술 열 여지를 안 주는 것이 국가라고 할 수 있다. 근본적으로 바꿀 것

이라며 분노를 보이기도 했다.

그는 “이 문제의 핵심은 군내에서 소수자이자 약자인 여성 부사관이 도움의 손길 하나 받지 못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졌다는 것”이라며 “더는 사회적 약자가 사면초가 상태로 일반적으로 당하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2차 추경이 공식화되면서 재난지원금을 선별 또는 보편 지급하는 방안을 둘러싸고 공방이 벌어지는 데 대해 “정부가 올해 또 빚을 낸다고 하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 남은 돈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하는 만큼 일단 우리가 재난지원금으로 쓸 수 있는 규모가 얼마인지가 먼저 나와야 하는 상황”이라고 신중론을 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으로 방역의 총책임 역할을 맡은 김 총리는 ‘언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몇몇 국가가 일상으로 되돌아가고 있다고 해도 몇 천 명씩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이다. 우리 국민은 방역 민감도가 높고 공동체 의식이 강해 그렇게 거친 방식으로 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김부겸(가운데)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 조만간 기획단 가동...대선레이스 시동 건다

정세균 17일·이낙연 이달말 출사표 이재명 선인 압박·추미애 마음 굳혀

더불어민주당이 조만간 대선기획단을 가동할 것으로 보여 출마 선언이 잇따르는 등 대권 경쟁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13일 정가에 따르면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오는 17일 대권 도전을 선언할 계획이다. 이낙연 전 대표도 이달 하순을 출마선언 시점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출마선언도 임박했다.

다른 주자들도 쟁쟁음을 하고 있다. 김두관 의원은 14일 부산에서 회고록 ‘꽃길은 없다’ 출간 기념회를 연 후 이달 말쯤 출마선언을 할 계획이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여전히 출마를 고심 중이지만, 사실상 마음을 굳혔고 출마 공식화가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박용진·이광재 의원과 양승조 충남지사, 최문순 강원지사 등은 이미 출마선언을 마쳤다.

경선 지형도 관전포인트다. 현재까지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가 1, 2위를 유지하는 가운데 3위 자리 경쟁에 불이 붙었다. 정 전 총리가 선명성 전략을 앞세워 ‘마(魔)’의 5% 지지율을 넘어서는 상승 흐름을 타고 있지만, 강성 발언으로 인지도가 높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치고나가는 형국이다.

야권발 ‘이준석 돌풍’의 상승기류를 노리며 ‘세 대교체’를 전면에 부각하고 있는 박용진·이광재 의

원 등의 기세도 만만치 않다.

국민의힘이 변혁을 예고한 상황에서 민주당으로 서도 젊은 주자들의 세대교체론을 마냥 외면하기는 어렵지 않으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재명·이낙연·정세균의 ‘빅3’에서 ‘1강 1중 다약’ 구도 로 바뀔 수 있다.

이르면 이달 중순께 대선기획단 출범과 맞물려 대선주자들의 경쟁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당 관계자는 “예초 6월 중순 기획단을 띄울 방침이 있지만, 단장 인선으로 인해 일정이 다소 유동적으로 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실무적 준비는 돼 있는 만큼 방향만 정해지면 신속하게 대선 모드로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윤석열 대변인 진용 구축...이동훈·이상록 투톱

이상록 국민권익위원회 홍보담당관(과장급)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캠프 대변인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 출신으로, 동아일보 법조팀장 시절 윤 전 총장과 인연을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과 함께 윤석열 후보팀의 ‘투톱’ 진용을 갖추게 됐다.

윤 전 총장 측 관계자는 13일 “이상록 홍보담당관이 대변인으로 내정됐다”며 “이런 주부터 활동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홍보담당관은 지난 10일 “13일자로 퇴직한 다”는 문자메시지를 권익위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바 있다. 고려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서울

신문, 한겨레, 동아일보 등에서 기자로 일했다. 이후 CJ 계열 케이블 방송사인 tvN에서 시사교양 책임 프로듀서로 근무하다 지난해 6월 권익위로 옮긴 이색경력의 소유자이기도 하다.

언론학 박사인 이 홍보담당관은 지난 2008년 BBK 의혹 보도에 따른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지지율 변동을 주제로 석사 논문을 쓰기도 했다.

이 논문에서 “이명박 후보 의혹 보도가 많아질수록 이 후보 지지율이 낮아졌다”면서 우리 언론도 팩트체크를 가동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연합뉴스

‘이준석 현상’에 설자리 좁아지는 제3지대

윤석열·안철수 합류 압박 작용

국민의힘 ‘이준석 신드롬’이 당 밖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등에게 국민의힘 합류 압박으로 작용하는 듯한 흐름이다. 이 대표의 당선으로 국민의힘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중도 확장성을 확보하면서 ‘제3지대’를 노리는 정치 세력의 설 자리가 갈수록 좁아질 수 있어서다.

대표적 보수 정치세력인 국민의힘이 보수부터 중도까지의 이념 스펙트럼을 폭넓게 흡수해내면 영역 자체가 협소해지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이 대표 당선을 계기로 당 핵심 지지층의 외연을 보수에서 중도·무당층까지

확장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정치권의 ‘혁신 아이콘’이자 세대교체의 상징이 된 이 대표가 국민의힘의 간판으로 등장함에 따라 “절대 국민의힘에는 투표할 수 없다”는 식의 중도층과 여론 지지 이탈층의 거부감이 크게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당 안팎에서 흘러나오는 상황인 셈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주변에서는 제3지대 독자세력 구축이 더 어려워진 이들에게 국민의힘 합류가 유일한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안철수 대표는 국민의힘과 합당을, 최근 대변인을 선임하며 정계 진출을 목전에 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국민의힘 입당을 서두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기대가 당 안팎에서 오는 배경이다. /연합뉴스

‘이준석 바람’...박용진, 與 대선후보 적합도 또 3위

윤석열 전체 지지율 40% 육박...여권 이재명 31%·이낙연 13%·정세균 6%

PNR리서치 여론 조사

여권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이재명 경기지사, 이낙연 전 대표에 이어 3위에 올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또 나왔다.

30대 국민의힘 이준석 신인 대표가 물고 온 ‘세 대교체 바람’이 여권 대선후보들 간 격화 구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박 의

원은 민주당 대권주자 가운데 유일한 97세대(90년대 학번·70년대생)다.

머니투데이·미래한국연구소가 여론조사업체 PNR리서치에 의뢰해 12일 하루 동안 전국 성인 100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박 의원은 범여권 대선후보 적합도에서 6.9%를 기록, 이 지사(31.7%)와 이 전 대표(13.1%)의 뒤를 이었다.

이외 정세균 전 국무총리(5.9%),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4.9%), 김두관의 의원·양승조 충남지

사(1.5%), 이광재 의원(1.4%) 순이었다. ‘범여권 내 적합한 인물이 없다’는 의견은 21.2%였다.

여야를 포함한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39.1%로 1위를 유지했다. 2위인 이 지사(26.2%)와의 격차는 12.9%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었다. 3위는 이 전 대표(12.3%)였고 무소속 홍준표 의원(5.9%),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2.7%), 정 전 총리(2.6%), 정의당 심상정 의원(1.2%)이 뒤를 이었다.

이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부동산 직거래 [토지·건물·임야] 매매·임대

- 토지와 아파트용 정원수 포함**
순창 금과 방축리, 담양 경계 계획관리지역 전9,190㎡, 느티나무15년생 105주와 7중(소나무, 백일홍, 목련, 벚나무, 함박꽃나무, 산수유, 은행나무) 총 1,810주 광주간 25분, 신실국도4차선 근접, 전원주택, 펜션, 물치장, 다목적 사용자, 조경수 포함 ㎡ 8만원
- 상가건물**
1) 광주 동, 대인동시장, 아시안 주도로 사거리코너 점포8칸, 대238㎡ 연257.8㎡ 주변아파트 9천여세대 건축중 문화전당 연계 집중개발 투자 최상 매999천만원 보1천6백 월2백만원 상업지역
2) 광주 북, 오치동, 4층 대384㎡ 연998㎡ 사거리코너 요지1층 점포6칸 매16억 5천만원 보2억 월6백6십만원
- 전원주택, 가든, 펜션 용지**
1) 담양 금성 덕성리, 광주간 20분 메타카로수길 70m점 계획관리지역 전·담 4,363㎡ 덕진산자락 남향 경관수려 ㎡14만원
2) 화순 북면 옥리, 금포온천 정문 입구 도로점 계획관리지역 전531㎡ 매㎡18만원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용지(주거2중) 분할 가**
1) 담양읍 양각리, 강변 관방제림, 독일 관광마을 조성지 근접, 광주간15분 공용주차장, 도로3면 포장 배수로 기반시설됨 경관수려, 정남시장 근접, 교통요지 담4,220㎡(1,276평) 매㎡ 7십만 ※ 분할매매가
- 임야(전원주택, 펜션, 농가주택, 휴양소 약초재배 적합)**
1) 영암읍 학송리, 계획관리지역등 포함 7만6천㎡ 광주간45분 4차선국도근접 완도간 고속도로 2023년 완공시 영암 IC 300m 지점 이용, 광주간25분 소요, 마을변방 편백 휴양림 1만주식재, 농지가용면적 5천㎡ 쾌적한 자연경관 전원주택 펜션 대형차 출입기 귀촌자 최상 ㎡당 6천원 (매매)
2) 화순 도곡 신성리, 광주간20분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5,810㎡(전포화) 지석강 바라봄 마을변방 정남향, 관방제림 전원주택, 펜션 휴양소 적합 매㎡4만원 (매매)
3) 담양 금성 덕성리, 광주간25분,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종전 발으로 경작한 평지 토질 마사토 22,140㎡ 각종 약초 재배 적지 현지직상 맹지 자연림 소나무 자생 매㎡ 2만원 (매매)
4) 담양 월산면 중월리, 광주간25분, 농림지역 도로점 62,740㎡ 휴양림 적층 다수 자생 생약재배, 캠프장, 농가주택가 ㎡5천원 (매매)
- 건축물 임대(상가, 투룸)**
1) 사무실용 기타(현 마트) 광주, 서, 농성동 돌고개역 근접, 4차선 대로면 7층건물 중 1층 135㎡ 내부깨끗 대형주차장(부설·참고·화장실) 보증금2천만원 월110만원
2) 광주 동, 대인시장 내 점포 아시안 주도로, 사거리코너 11㎡(약3평) 전시장, 먹거리, 건물용 기타 다목적 사용자, 보3백 월30만원
3) 투룸임대 광주, 서, 농성동 돌고개역 양동시장 근접 3층 52㎡ 풀옵션 정남향 엘리베이터 도시가스 대형주차장 보2백만원 월30만원 즉시 입주

※ 부동산 직거래
광주광역시 서구 월산로 188-8 H. 010-3612-9262

상가 매매 (상무지구)

1) 감정가(시세) 9억
매매가 6억 8천 (용 4억가)

2) 보증금 4천만, 월 300만(임대완료)

3) 평수 140평(전용 100평)

중심상업지역 메가박스 영화관 앞
 사무실, 바, 유희룸, 모든 업종 가능

(즉시 업무가능, 시비없음)

010-6670-9800

장성토지 (분양 매매)

광주에서 20분(도로점)
장성댐(호) 2분, 장성 IC. 5분

1) 100평 → 8천
2) 150평 → 1억1천

총 1,778평 → 9억 (용 4억가)

10필지 전원주택
선착순 접수중

062-382-5500